

冰心 詩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식에 관한 고찰

- 五四시기 작품을 중심으로

김희진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冰心 詩와 기독교와의 관계
 - 1. 冰心の 기독교적 배경
 - 2. 冰心 詩의 기독교적 성향
 - III. 冰心 詩의 기독교적 인식
 - 1. 自然에 대한 인식
 - 2. 소명과 성찰에 대한 인식
 - 3.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인식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冰心(1900-1999)은 五四 시기에 問題小說을 통해 등단한 이후, 1921년 文學研究會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중국 현대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여류작가¹⁾이자 중국 현대소설사상 첫 번째 여성 소설가로서²⁾, 중국 현대여성문학의 기초를 다진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그녀는 1919년 8월 《晨報副刊》에 단편소설《兩個家庭》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한 이래, 많은 작품에서 여성 문제, 봉건가정과 가족구성원의 갈등, 젊은 지식인의 방황과 고민, 구식 혼인의 문제 등 현실을 고발하고 계몽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1920년 이후 五四 운동의 활기가 사라지고 이른바 五四 퇴조기가 시작되자 冰心은 사회개혁의 열의를 상실한 채 현실도피와 허무주의, 번민

* 극동대학교 중국항공운항서비스학과 조교수

1) 黃修己, 고대중국어문연구회 譯, 《中國現代文學發展史》(범우사 1991년), 125쪽.

2) 楊義 著, 《中國現代小說史》 제1권(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6년), 222쪽.

과 좌절에 빠져가던 청년들을 향해 “사랑의 철학(愛的哲學)”으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특히 그녀는 문제해결의 방안으로서 기독교적 사랑에 기초한 인내, 용서, 관용, 박애정신 등을 주장하며 사회, 인생, 삶의 변화와 개조를 제시하였는데,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서로의 벽과 대립을 허물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인 억압과 분쟁도 막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³⁾

일찍이 1935년 阿英은 《謝冰心小品·序》에서 「그녀의 작품 속에는 기독교 사상의 혈액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혈액들은 그녀의 사랑의 철학을 관통하고 있다.»⁴⁾, 許正林은 「冰心은 許地山과 함께 中國現代作家 중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깊은 작가이며 평생 자신의 인격과 예술 열정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였다.»⁵⁾ 라고 지적하였다. 이외에 茅盾, 賀玉波, 毅眞 등도 冰心の 사랑 철학과 기독교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으나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⁶⁾

1920년대 초 冰心은 짧은 詩行의 短詩體 작품을 통해 선명한 기독교적 성향을 드러내며, 기독교적 사랑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였다. 기독교적 사랑을 어머니의 모성애로 동심과 자연에 대한 찬미로 확장 표현하였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社會의 모든 부분을 理解하고자 하였다. 시 속에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로서 ‘上帝’의 관념을 잘 표현하였으며, 冰心の 詩集 《繁星》과 《春水》 그리고 五四 시기에 쓴 연작시 〈聖詩〉에는 上帝를 향한 풍부한 상상과 기독교적 문화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⁷⁾

이러나 “사랑의 철학(愛的哲學)”은 기독교⁸⁾에 대해 관대했던 冰心の 가정 분위

-
- 3) 康泳, 〈論冰心創作中的母愛意識與基督教文化的影響〉: 《昆明理工大學學報》 第9卷 第12期, 2009, 53쪽.
 - 4) 楊劍龍, 〈基督教與冰心“五四”時期的創作〉: 阿英「在她的作品中, 也還有基督教思想的血液存在, 這些血液, 是流貫在她的愛的哲學之中。」(《江海學刊》, 第6期, 1995), 166쪽 재인용.
 - 5) 許正林, 《中國現代文學與基督教》: 「許地山和冰心是中國現代作家中受基督教影響最深的作家, 他們終生都在以自己的人格與藝術熱情播種‘愛’的福音。」(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3), 160쪽.
 - 6) 楊劍龍, 〈基督教與冰心“五四”時期的創作〉: 《江海學刊》 第6期, 1995, 166쪽.
 - 7) 박남용, 〈중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2010년, 제33집, 118쪽
 - 8) 중국에서 기독교의 정의는 경교(景教), 천주교(舊教), 개신교(改新教)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본고에서 논의하는 기독교는 신교, 개신교를 위주로 한다.

기와 미션계 학교의 기독교 교육과 박애주의, 유년 시절의 바닷가 체험을 통한 대자연에 대한 경외와 사랑 등으로 형성된 冰心 문학과 창작의 핵심이다.⁹⁾ 따라서 冰心 창작의 핵심이자 주제인 “사랑의 철학(愛的哲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기반을 이루는 冰心の 기독교적 세계관과 더불어 詩 작품에 구현된 기독교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冰心の 詩는 散文만큼 많은 數量은 아니지만 冰心 문학의 꽃이자 精髓로서, 童心, 모성애, 자연 등의 주제를 통해 “사랑의 철학(愛的哲學)”을 부각시킨 장르로 평가된다.¹⁰⁾ 그러나 국내에서 冰心の 詩에 대한 연구는 주로 小詩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기독교와의 관계는 극히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¹¹⁾, 詩 작품과 기독교적 특징을 고찰한 경우는 거의 全無하다. 부족한 연구의 보완이 절실하다.

冰心の 詩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인식을 고찰함에, 1919년부터 1923년 8월 미국 유학 가기 이전에 발표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¹²⁾ 특히 1920년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인 《生命》(1921-1923)에 발표한 聖詩를 주요 대상으로, 詩集 《繁星》(1923.01)과 《春水》(1923.05) 가운데 기독교적 정신이 선명한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하기로 하겠다. 五四 시기에 冰心이 기독교 잡지《生命》에 발표한 聖詩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구와 찬미를 담고 있다.¹³⁾ 이는 冰心の 신앙 고백인 동시에 “사랑의 철학(愛的哲學)”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¹⁴⁾

五四 시기에 발표한 冰心の 기독교 성향의 시 작품을 대상으로 그녀의 정신세계

9) 黃修己, 고대중국어문연구회 譯, 《中國現代文學發展史》, 126-127쪽

10) 박종숙, 〈冰心과 그녀의 詩에 관하여〉: 《중국학논총》 2005년, 제19집, 406쪽

11) 박은숙, 《冰心の 小詩연구》(석사학위, 계명대 대학원, 1994), 유희진, 《冰心문학에 대한 그리스도교 사상의 연구》(석사학위, 인하대 대학원, 2011), 박종숙 〈冰心과 그녀의 詩에 관하여〉: 《중국학논총》 19집, 200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2) 盧啓元 《冰心作品欣賞》(廣西教育出版社: 1990), 4쪽에서 冰心の 創作活動時期를 五四부터 1930년까지를 前期, 1931년부터 1951년까지를 中期, 1952년 이후를 後期로 구분하였다. 빙심은 1926년 7월 귀국할 때까지 빙심은 3년간의 유학기간 느낀 고향·가족의 그리움, 자연에 대한 회상, 미국 생활의 정서 등을 담은 산문을 발표하며, 산문집 《寄小讀者》(1926) 《往事》(山中雜記)에 수록했던 반면에 시 창작은 총 2편(倦旅)(1924.2.12. 《晨報副鐫》 발표), 〈赴敵〉(1925.6.22.《語絲》)발표)으로 급감하였다.

13) 王本朝, 《20世紀中國文學與基督教文化》(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0), 102쪽

14) 楊劍龍, 〈論基督教文化与冰心、許地山小說的敘事模式〉: 《中國比較文學》, 2009년 第3期 (總第76期), 60쪽.

에 영향을 미친 신앙생활 특히 읽고 들었던 성경구절이¹⁵⁾ 詩 창작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작품 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 배경으로서 1920년대五四 시기 중국 문단의 기독교 수용 상황과 영향을 살펴본 후, 冰心의 詩 작품과 기독교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阿片戰爭(1840-1842) 이후 중국인들은 서구 열강의 침입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를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겼으나,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중국 여성의 전족 금지와 여학교 설립이었다. 비록 선교라는 종교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중국여성의 계몽과 여성교육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각성한 중국인들의 노력과 결합하여 중국 여성들의 정신·육체적 해방에 영향을 가져왔다.¹⁶⁾

五四 시기라는 사회·문화적 변혁기를 통해 서구 문화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신문화운동의 선각자와 개혁적 지식인들에 의해 기독교에 대한 재조명·재발견이 주도되었으며, 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기존 중국인들이 지녔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五四 시기 민족주의적 지도자였던 陳獨秀는 1920년 〈基督教與中國人〉¹⁷⁾에서 기독교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대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중국인의 편견을 지적하는 한편 기독교에 대한 재인식을 역설하였다. 또한 周作人也 1921년 〈聖書與中國文學〉에서 「현대문학 중 인도주의사상은 거의 기독교정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근대문예에서 인도주의사상의 원천은 대부분 여기일 것이다.(現代文學中的人道主義思想, 差不多也都從基督教精神出來,……近代文藝上人道主義思想的源泉,一半便在這里。)」¹⁸⁾라며 서구의 사상과 문예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였다.

20세기 초, 기독교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작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독교와 접촉하며 영향을 수용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5) 본고의 한글 《성경》 내용은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년) 개역개정판을 인용하였다.

16) 盧在軾, 〈근대중국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연구〉; 《震檀學報》, 2011년, 113호, 267-268쪽.

17) 陳獨秀, 《新青年》第7卷 第3號, 1920. 「把耶穌崇高的、偉大的人格, 和熱烈的、深厚的情感, 培養在我們的血里, 將我們從墮落在冷酷、黑暗、污濁坑中救起。」

18) 周作人, 「聖書與中國文學」 1921. 劉勇 〈基督教精神與中國現代文學〉; 《廣播電視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年第3期(總第 126期), 1쪽 재인용.

당시 중국의 작가들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을 맺고 영향을 받아들였다.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 단체나 미션계학교를 통해 기독교의 영향을 수용하거나¹⁹⁾, 救國救民을 위해 떠난 외국유학에서 기독교와 접촉을 통해 받아들였으며, 1919년 출판된 《官話和合譯本 新舊約全書》 즉 《聖經》을 통해 영향을 수용하였다.²⁰⁾ 많은 중국 현대작가들은 《聖經》을 종교와 무관하게 서양 문화의 텍스트로 인식하였고, 뛰어난 문학 작품의 하나로 받아들였다.²¹⁾ 그래서 읽기 쉬운 이야기체의 聖經이 중국어로 번역 출판되면서, 중국 문학과 언어는 더욱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819년 선교사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위해 시작한 《聖經》의 中譯은 1919년까지 신·구약 전권이 번역되어 성경 9종으로 간행되었고, 각 지역 方言으로도 다수 번역되었다. 聖經 번역은 본래 기독교 복음 전파라는 종교적 목적 외에 신문화운동에서 서문어로서 백화문의 정착에 기여하였고, 중국 新詩의 형성과 소설의 서사 방식, 소재의 확장 등에 영향을 끼쳤다. 1919년 어려운 수식 없이 간결하고 읽기 쉬운 번역본 《聖經》이 보급되자 성경지식과 성경문화가 널리 소개되어, 중국 문단에는 성경적 분위기의 새로운 언어영역을 형성하였다.

많은 작가들이 “懺悔”, “十字架”, “羊”, “上帝”, “耶穌(예수)”, “復活” 등 성경적 어휘와 명언, 예화 등을 자연스럽게 차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聖經의 中譯에 따른 보급으로 인해 성경적 사유방식이 중국 사회에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²²⁾ 또한 백화문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번역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의 詩篇들이 각각 별도의 詩로 형성되었는데, 산문 백화문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중국 현대 시인에게 새로운 詩 형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모성이라는 새로운 제재와 애정시의 출현을

19) 미션계 학교에서 기독교를 접촉 수용한 작가로는 周作人(日本立敎大學), 冰心(北京貝滿女中, 燕京大學/協和女子大學), 許地山(燕京大學), 盧隱(北京女子慕貞學校), 張資平(廣東廣益中西學堂), 郁達夫(杭州之江大學豫科, 惠蘭中學), 林語堂(福建龍溪銘新小學, 廈門尋源書院, 上海聖約翰大學), 蕭乾(北京崇實學校, 燕京大學) 등을 들 수 있다.

20) 심혜영, 〈중국현대문학의 창을 통해 본 근대중국과 기독교의 만남〉: 《中國語文論譯叢刊》 2011년, 第28輯, 228-229쪽 참조.

21) 심혜영, 〈중국현대문학의 창을 통해 본 근대중국과 기독교의 만남〉: 《中國語文論譯叢刊》, 2011년, 第28輯, 235쪽.

22) 李秀娟, 《聖經中譯研究》(忠南大大學院 博士論文 2013.02), 254쪽.

가능케 하였다.²³⁾ 이처럼 중국 현대문학에는 단순하게 題目이나 소재 차원에서 기독교적 관심을 표시한 작품부터 기독교 정신과 교리를 표출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 冰心 詩와 기독교와의 관계

중국에서의 '기독교 시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중국 시인의 기독교 신앙 체험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인의 내적 감정의 형상화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 내용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시인의 詩 세계 속에 기독교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또한 기독교 문화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조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인 개인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더 구체적으로 시인의 작품 속에 어떻게 기독교적 문화가 표현되고 있는지 나아가 기독교적 문화의 예술적 표현들이 시인의 기독교 의식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²⁴⁾

1. 冰心の 기독교적 배경

본 절에서는 冰心이 기독교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으로, 미션계 학교의 교육과 종교생활, 성경에 대한 이해, 세례 수용 등 시인의 삶과 환경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적 배경과 신앙 체험 등에 대해 탐색하기로 하겠다.

冰心은 北京貝滿女子中,(1914-18), 協和女子大學(1918-20)과 燕京大學

23) 엄귀덕, 〈중국 초기 현대시의 신여성형상〉; 《人文學研究》 84호, 2011년, 236-239쪽 참조.

24) 박남용, 〈중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제33집, 2010년 겨울호, 116쪽. 한국의 신규호는 한국의 '기독교 시문학'이란 시어로 이루어진 기독교 신앙 체험의 예술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 신앙 체험이란 작품을 창작하는 시인의 내적 감정이나 그 작품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체험의 내용이 기독교적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신규호, 《한국 현대시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3, pp.58-59.

(1920-23) 졸업 후 1923년 미국 웰즐리(Wellesley) 대학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미선계 학교에서 수학하며 기독교 사상과 문화를 접하였다. 미선계 학교 설립의 목적이 복음 전파와 신자 양성에 있었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이었을지라도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며 더구나 오랜 기간 미선계 학교에서 수학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성장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 종교 교육은 커다란 영향을 주는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나이이고, 교회·장엄·기강·청춘의 꿈에 찬송가를 결합해 부르곤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계속 지속할 것이다.²⁵⁾

冰心은 1914-1923년 까지 거의 10여 년간 선교사가 설립한 미선계 학교에서 성경과 예배 등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였다. 더구나 그녀의 가정은 외래 사조와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미선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았다. 나의 둘째 큰아버지 謝葆가 福州 倉前山の 英華書院에서 중국어를 가르쳤는데 그곳은 미선계 학교였다. 둘째 큰아버지의 아들인 나의 사촌 謝爲樞도 그곳에서 공부하였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강제로 입교할 것을 권하지 않았던 것 같다.²⁶⁾

冰心은 기독교 교육과 문화에 개방·긍정적이었던 가정환경 아래, 1914년 미국 기독교公理會에서 설립한 北京 貝滿女子中學(Bridgeman school)에 입학해 서구 문화와 사고방식, 기독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25) 張愛玲, 《張愛玲的文集4》: 「教會學校的學生, 正在容易受影響的年齡, 慣於把贊美詩與教堂和莊嚴、紀律、青春的理想聯系在一起, 這態度可以一直保持到成年以後, 即使他們始終沒有受洗禮。」, 黃曉娟〈從精神到身體〉; 《江海學刊》2005년 3期, 185쪽 재인용.

26) 冰心, 〈我入了貝滿中齋〉: 「我的父母并不反對我入教會學校, 因為我的二伯父謝葆(穆如)先生, 就在福州倉前山的英華書院教中文, 那也是一所教會學校, 二伯父的儿子, 我的堂兄謝爲樞, 就在那里讀書. 仿佛除了教學和上學之外, 並沒有勉強他們入教。」, 《冰心全集7》(海峽文藝出版社 1994), 513-514쪽.

이때 바깥 대식당 안에서 '식사에 대한 감사'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고,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그곳에서 식사하였다. 그들은 선 채로 노래 부르고, 노래를 마치면 비로소 앉아서 식사하였다. …… 우리는 매일 오전에 수업 외에, 마지막 30분 정도 집회가 있었다. 대부분 학교의 중국인, 미국인 선생님 또는 공리회의 목사님이 와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 이 외에 주일의 '성경연구회'는 학교 밖에 거주하는 비기독교 학생들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구성해서, 공리회의 교회로 가서 예배보기 전에 協和女子書院의 원장 麥 선교사가 우리에게 30분 정도의 성경 관련 이야기를 해주었다.²⁷⁾

冰心은 종교 교육을 통해 성경 지식과 교양을 쌓는 한편 찬송가, 기도, 성경 우화 등 기독교 문화를 생활로 체득하고 기독교도였던 교사와 학생들 등 주변인들과의 친분, 교류를 통해 거부감 없이 기독교와 가까워졌다. 스스로 "중학교 4년 동안 교과서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읽은 신소설은 없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인해 나 자신의 '사랑'의 철학이 은밀히 형성되었다."²⁸⁾라고 밝혔듯이, 그녀의 "사랑의 철학(愛的哲學)"은 바로 기독교적 사랑과 성경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18년 여름 貝滿女中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冰心은 같은 해 가을, 미션계 協和女子大學(1920년 3월 燕京大學과 합병)에 입학한다. 이곳에서 그녀는 신앙생활에 계기가 되는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한다.

보라! 양치기의 옷소매에 가시나무가 걸려있다. 그는 벼랑을 기어오르고 고개를 뛰어넘으면서 어린양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불쌍한 어린양! 양은 길을 잃은 것이다. 땅엔 많은 갈림길이 있고 하늘엔 굽주린 독수리가 달려든다. - 양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양치기가 나타났다. 나무라지 않고 예전처럼 사랑으로 돌본다. 양은 슬프고도 후회되기도 기쁘기도 하다. 다만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어 목동의 손에 다가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²⁹⁾

27) 冰心, 〈我入了貝滿中齊〉: 「這時外面大餐廳里響起了『謝飯』的歌聲, 住校的同學們几乎都在那里用飯. 她們站着唱歌, 唱完才坐下吃. ……我們每天上午除上課外, 最后半小時還有一个聚會, 多半是本校的中美教師或公理會的牧師來給我講道. 此外就是星期天的『查經班』, 把校里的非基督徒學生, 不分班次地編在一起, 在到公理會教堂做禮拜以前, 由協和女子書院的校長麥教士, 給我們講半小時的聖經故事.」, 《冰心全集7》(海峽文藝出版社 1994), 513-522쪽.

28) 冰心, 〈我的文學生活〉: 「中學四年之中, 沒有顯著的看什麼課外的新小說. 又因着基督教義的影響, 潛隱地形成了我自己的『愛』的哲學.」, 《冰心全集3》(海峽文藝出版社 1994), 2-14쪽.

1919년 겨울, 冰心은 병으로 결사한 기말고사 성경 과목을 만회하기 위해 방문한 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특별한 느낌’의 신앙 체험을 하는데, 우연히 벽에 걸린 聖畫를 보는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인해 눈물이 샘물처럼 흘러내리는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聖畫의 내용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 관한 내용으로³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녀는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위험에 처한 양 1 마리를 구하기 위해 숲과 골짜기를 헤매는 헌신적인 양치기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한 것이다.

그림은 내게 있어 계시이고, 교훈이며, 위로이다. 난 한마디도 소리 낼 수도 없이 단지 난로가 근처에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 나는 움직이지 않고 주시했고 마음속 감동은 조수처럼 용솟음쳤다. 순간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 눈물은 감격일까, 신앙일까, 위안을 얻은 것일까?³¹⁾

“시적인 정취와 그림이 주는 의미는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히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³²⁾ 라는 冰心의 고백처럼 경이로운 체험이며, 종교적 계시·위로 아니면 영적 체험인지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하고 강렬한 감동이었음은 분명하다. 冰心은 1922년 가을 燕京大學 總長·선교사였던 司徒雷登(John Leighton Stuart)와 영어 교수·선교사였던 包貴思(Grace M. Boynton)의 영향 아래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³³⁾

29) 冰心, 〈畫-詩〉: 「看! 牧人的衣袖上, 挂着荊棘, 他是攀崖逾嶺的去尋找他的小羊, 可憐的小羊! 它迷了路, 地下是歧途百出, 天上有飢鷹緊追着——到了山窮水盡的地步了。牧人來了! 并不責備它, 却仍舊愛護它。它又悲痛, 又慚悔, 又喜歡, 只溫柔羞怯的, 仰着頭, 挨着牧人手邊站着, 動也不動。」, 《冰心全集1》(海峽文藝出版社 1994) 116-117쪽.

30) 누가15: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31) 冰心, 〈畫-詩〉: 「它是暗示我, 教訓我, 安慰我。它不容我說出一句話, 只讓我靜穆沉肅的立在爐台旁邊。——我注目不動, 心中的感想, 好似潮水一般的奔涌。一會兒忽然要下泪, 這泪, 是感激呢? 是信仰呢? 是得了慰安呢?」, 《冰心全集1》(海峽文藝出版社 1994) 116-117쪽.

32) 冰心, 〈畫-詩〉: 「那一天的別的印象, 也都模糊了。但是這詩情和畫意, 却是從那時到現在永遠沒有離開我」, 《冰心全集1》(海峽文藝出版社 1994), 116-117쪽.

33) 冰心은 자신의 세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연구자들은 그녀의 세례시기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① 1919~1923년 사이, 燕京大學 재학부터 미국유학 이전에

당시 선생님은 많은 학생 모두 내가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내가 세례 받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간단하게 바로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말하였다. 34)

冰心の 회고는 본인이 원해서 세례 입교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급생과 교수가 注視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정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해명하고 있다. 강요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수의 목시적 기대와 함께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차원에서 스스로 세례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冰心の 세례 수용은 강압적 방법이나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한 미션계 학교의 교육과 종교적 분위기, 기독교 신자였던 교우들, 선교사이자 교사였던 주변인들의 영향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친밀했던 가족들의 영향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冰心 詩의 기독교적 성향

미션계 학교의 교육은 시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 미쳤을 뿐만 아니라 창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冰心은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성경을 모방하여 작품 썼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 우리는 성경 시간에 마침 “솔로몬 아가”를 배우고 있어서, 나는 아가의 형식을 모방하여 T여사를 찬미하는 구절을 적었고 영문 연습장의 뒷면에 한 장 한 장씩 써 나아갔다. 10 편 넘게 모았지만 다른 이에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또한 찢어 버리고 싶기만 했다. ……나는 바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단지 얼굴을 붉혔고 앞으로 가서 빼앗아 찢어 버렸다. 이로부터 아가를 감히 쓰지 못했고, 그해 나는 15세였다.35)

받음. 楊劍龍, 〈論基督教文化与冰心、許地山小說的敘事模式〉; 《中國比較文學》, 2009年 第3期(總第76期), 53쪽과 許正林, 《中國現代文學與基督教》(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3), 72쪽. ② 1922년 가을에 받음; 王炳根, 《玫瑰的盛開與凋謝》(獨立作家出版社 2014), 141쪽.

34) 冰心, 〈子岡. 冰心女士訪問記〉; 「因爲當時先生說許多同學都在看我的樣, 我不受洗她們也都不受洗, 我說那容易, 便那麼辦了。」楊劍龍, 〈論基督教文化与冰心、許地山小說的敘事模式〉; 《中國比較文學》, 2009年 第3期(總第76期), 53쪽.

성경 학습을 통해 읽은 구약성경의 雅歌를 모방하여 10여 편의 시를 썼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름다운 노래, 최상의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雅歌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인간간의 사랑의 형태로 그려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³⁶⁾ 인용문 속 T 여사는 貝滿女中の 代數·歷史 교사로, 冰心은 아가의 형식을 빌려서 T여사의 아름다운 용모와 인자한 성품을 찬미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주변의 오해로 인해 스스로 찢어 없애 버렸기 때문에 당시의 작품을 확인할 길 없지만, 성경 형식을 모방하여 창작하였다는 측면에서 성경의 직접적인 영향 받았음이 분명하다.

冰心은 1921년에 詩15편을 《生命》에 발표하고 ‘聖詩’라고 칭하였는데³⁷⁾, 창작 과정과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이 책을 읽을 때마다 - 새벽이든 한 밤이든 - 언제나 그 구절들 속에
 는 지극한 아름다움이 끝없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특별히 한 두 구절은 정
 말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데, 그 안에는 거룩하고 장엄하고 환한 오묘한 이미지가
 충만해서,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몇 구절만을 선택해 재구성한 것이다. 당연히
 원문의 뜻은 넓고 심오해서, 나는 그저 개인적, 단편적으로 그때 당시의 감상만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얻고, 나머지 백 개를 잃어버리는 일은
 피하지 못할 것 같다.³⁸⁾

자신이 聖經을 읽을 때마다 느꼈던 감동, 위로, 경건함 등 성경과의 오묘하고 신
 비로운 交感 등을 詩로 탄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³⁹⁾ 다시 말해 聖詩란 신앙적 감

35) 冰心, 〈我的教師〉: 「那時我們在聖經班里, 正讀着“所羅門雅歌”, 我便模仿雅歌的格調, 寫了些贊美T女士的句子, 在英文練習簿的后面, 一頁一頁的寫下疊起。積了有十几篇, 既不敢給人看, 又不忍毀去。……我又不便說出實話, 只好漲紅着臉, 趕過去搶來撕掉。從此連雅歌也不敢寫了, 那年我是十五歲。」《冰心全集3》(海峽文藝出版社, 1994), 210-214쪽.

36) 〈아가서론〉, 《마스터성경》(성서교재간행사 1989), 957-959쪽 참조.

37) 王本朝, 《20世紀中國文學與基督教文化》(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02쪽.

38) 冰心, 〈聖詩序〉: 「《聖經》這本書, 我覺得每逢念它的時候, 一 無論在清晨在深夜一 總在那詞句裏不斷的含有超絕的美。其中尤有一兩節, 儼然是幅圖畫, 因爲它充滿了神聖、莊嚴、光明奧妙的意象, 我摘了最愛的幾節, 演譯出來。自然原文的意思, 及其寬廣高深, 我只就着我個人適、片段的、當時的感想, 就寫了下來, 得一失百, 是不能免的了。」, 《冰心全集1》(海峽文藝出版社 1994), 182쪽.

39) 許正林, 「如果說“宗教文學”是指一種用文學的樣式敷演宗教的信仰觀念、膜拜對象和感

등을 성경적 소재·주제를 빌어 재구성한 것이다 하겠다. 발표한 聖詩들 대부분은 성경의 장·절을 副題처럼 표기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표-참조) 이는 靈感을 준 성경에 근거해 聖詩를 창작하였고 성경 말씀과 감동을 지킴삼아 신실한 신자로 살고자하는⁴⁰⁾ 시인의 의지와 자세를 반영한 것이다.

	발표 시기/ 발표지	제목	인용 성경	성경표기
1	1921.03.15.《生命》1권8기	〈傍晚〉	창세기3:8	副題
2	1921.03.15.《生命》1권8기	〈黃昏〉	욥기15:8	副題
3	1921.03.15.《生命》1권8기	〈夜半〉	시편16:7	副題
4	1921.03.15.《生命》1권8기	〈黎明〉	시편57:7-8	副題
5	1921.03.15.《生命》1권8기	〈清晨〉	시편139:9	副題
6	1921.05.15.《生命》1권9,10 합본	〈他是誰〉	이사야42:3	副題
7	1921.05.15.《生命》1권9,10 합본	〈客西馬尼花園〉	누가22:44	副題
8	1921.05.15.《生命》1권9,10 합본	〈骷髏地〉	요한19:30	副題
9	1921.06.15.《生命》2권1기	〈使者〉	에베소서6:20	副題
10	1921.06.15.《生命》2권1기	〈生命〉	아가서4:14, 시편 89:47	副題
11	1921.06.15.《生命》2권1기	〈孩子〉	요한계시21:11, 마태 18:3	副題
12	1921.10.15.《生命》2권3기	〈沉寂〉	욥기42:3	副題
13	1921.11.15.《生命》2권4기	〈何忍〉	마태18:10	별도표기
14	1921.12.15.《生命》2권5기	〈天嬰〉	미 표기	미표기
15	1921.06.15.《生命》2권1기	〈我+基督=?〉	미 표기	미표기

Ⅲ. 冰心 詩의 기독교적 인식

1. 自然에 대한 인식

冰心은五四 新문화운동 시기에 문제소설을 통해 사회개혁과 계몽을 추구한 반

情體驗的話, 那么我們有理由說冰心這些詩就是宗教詩。」, 《中國現代文學與基督教》(上海: 上海大學出版社), 64쪽.

40) 楊劍龍, 〈論基督教文化与冰心、許地山小說的敘事模式〉: 《中國比較文學》, 2009年第3期(總第76期), 53쪽.

면, 五四 퇴조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자연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철학을 통해 좌절한 청년들의 허무·냉소적 심리를 위로하였다.⁴¹⁾ 그녀는 사랑이 있으면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믿었고, 이러한 사랑의 철학에 기인하여 자신의 詩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린이에 대한 사랑, 나아가 자연에 대한 사랑까지 노래하였다.⁴²⁾

기독교 사상에서 自然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자연 안에서 또는 자연을 통하여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 만물은 곧 하나님의 베일이며 마스크이다.……역사는 날마다 그 자연 안에서 창조의 활동을 계속하신다.」⁴³⁾라고 말한다. 여기서 자연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관조적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음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놓인 자연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 절대적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 창세기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다.⁴⁴⁾ 冰心 역시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자연 만물이 운행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녀는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찬미와 경의를 표하였다.

햇빛 찬란한 낙원 안에
 꽃 피어있고
 새들 노래하며,
 생명 샘물 잔잔히 흐르는데,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노을 비추는 것은 - - -
 만물들과 악수하는 것일까?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부드럽게 서늘한 바람 불어오고,
 빛 그림자 속에,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 -- 그가 천천히 거니시네.
 여호와여!

41) 黃修己, 《中國現代文學發展史》(범우사 1991), 186쪽.

42) 박은숙, 《冰心的小詩연구》(석사학위, 계명대 대학원, 1994), 48-58쪽 참조.

43) 이장식, 《기독교사상사》(대한기독교서회 1966), 52쪽.

44) 이승구, 《基督教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서울: sfc, 2008), 26-27쪽 참조.

당신은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은 당신을 찬미케 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를 찬양하며,
 그를 찬미하려 합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저녁 무렵)⁴⁵⁾

이 시는 자연과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녁 무렵〉은 창세기3:8⁴⁶⁾에 근거하여 저녁노을 물든 숲 속, 이곳을 거니는 하나님, 善惡果를 따 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 등 아름다운 낙원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진술하듯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덴동산과 이를 창조한 절대자의 전지전능함을 예찬하고 있다. 시 속의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날의 에덴동산이며 초월적인 이상 공간이다. 에덴동산은 히브리어로 ‘태고의 정원’ 또는 ‘환희 동산’이라는 의미가 상징하듯 낙원의 대명사로 불린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상실된 고향이지만 기독교도들에게는 낙원을 상징하는 곳이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을 떠올리며 창조주를 예찬하는 것은 낙원이 회복되고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길 원하는 소망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그분’-‘여호와’라고 호칭하고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노을 비추는 것은, 만물들과 악수하는 것일까?’ 대자연의 운행질서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어제도,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하신 분’ ‘그분께 찬미와 경의를 표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했다고 인정하는 창조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이른 새벽〉에서도 대자연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 여기며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오묘한 섭리를 찾고 있다.

하늘과 바다 모두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어디서나 나와 이어져

45) 冰心 〈傍晚(創世紀第三章第八節)〉: 「明璀璨的樂園里: /花儿開着, /鳥兒唱着/生命的泉水潺潺的流着, /太陽慢慢的落下去了, /映射着余輝——是和万物握手嗎? /是臨別的歌唱么? /微微的涼風吹送着, /光影里, /宇宙的創造者, 他——他自己緩緩的在園中行走, /耶和華啊! /你創造他們, 是要他們贊美你么? /是的, 要歌頌他, /要贊美他。 /他是昔在今在以后永在的, 阿們。」, 《冰心全集1》, 182-199쪽.

46) 창세기3: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당신의 손길은 나를 인도하고
 당신의 오른손은 나를 돌봅니다.
 내 마음, 작은 새처럼 바람 타고 높이 날아올라,
 바람 타고 높이 날아올라도,
 당신의 무궁한 인자하심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른 새벽)⁴⁷⁾

시 속 화자는 하늘과 바다에 가득 찼만큼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다. '어디서나 나와 이어져' 있는 절대자의 사랑, '나를 인도하고' 돌보는 '손길'에 기뻐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다. "찬양" "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절대자의 무궁한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묘사된 자연은 긍정적인 공간이며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처럼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공간이자 신의 섭리가 실현되는 곳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冰心이 유년기를 보낸 山東省 烟台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고독한 아이였고, 芝東山의 바닷가에 살았다. 서너 살 막 철들 무렵 일 년 내내 보는 것이라고는 단지 푸르고 초목이 무성한 산과 끝없는 바닷가, 남색 옷을 입은 水兵과 회색의 군용선뿔, 들리는 것은 단지 산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맑게 울려 퍼지는 구호 소리, 이른 새벽과 깊은 밤의 나팔 소리뿐이었다. 단조로운 생활은 내 생각을 발전시켰다.⁴⁸⁾

冰心이 많은 시와 산문에서 자연과 바다를 노래했던 배경에는 烟台의 아름다운 바닷가, 자연경관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산문<통신9>에서 「정말로, 가장 잊기 어려운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이구나!」⁴⁹⁾라며 대자연에 향한 최상의 예찬과 동경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 창조주를 찬양하는 태도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며, 어린 시절 접한 자연환경과 체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47) 冰心, 〈清晨(《詩篇》第一百三十九篇第九節)〉: 「天邊, 海極, 都充滿着你的愛。/上帝啊! 你的愛隨處接着我, /你的手引導我, /你的右手也必扶持我, /我的心思, 小鳥般乘風高舉, /乘風高舉, 終離不了你無窮的慈愛, 阿們。」, 《冰心全集1》, 182-199쪽.

48) 冰心, 〈冰心全集. 自序〉: 「我從小是个孤寂的孩子, 住在芝東山的海邊上, 三四歲剛事的時候, 整年整月所看見的: 只是青郁的山, 無邊的海, 藍衣的水兵, 灰白的軍艦. 所聽見的, 只是: 山風, 海濤, 亮的口號, 清晨深夜的喇喇叭. 生活的單調, 使我的思想的發展。」, 肖鳳《冰心傳》(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 12쪽.

49) 冰心, 〈寄小讀者. 通訊九〉: 「真的, 最難忘的是自然之美!」, 《冰心全集2》, 101쪽.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頌祝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 나를 교훈하도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장엄하고 고요한 세상을 예비하셨습니다.
 별빛, 나뭇잎 소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우주는 어디에 있고, 인간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주는 사랑의 우주.

사람은? -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교훈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밤중에〉⁵⁰⁾

위의 시는 시편16:7⁵¹⁾을 인용하여 날마다 ‘좋은 생각’과 ‘교훈’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전하고 있다. 자연을 절대자가 계신 아름답고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있다. 대자연의 ‘별빛’, ‘나뭇잎 소리’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경배하고 있다.

冰心の 자연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했다고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이 신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감하고 항상 신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 모든 사물의 존재가치가 신의 섭리 속에 있다는 기독교적 인식에 기초하여 冰心은 시에서 자연과 인간은 기독교라는 가치관을 내포한 존재를 의미하며, 자연 속에 산재해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해 사물 속에 담겨있는 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50) 冰心, 〈夜半(《詩篇》第十六章第七節)〉: 「上帝啊! 你安排了這嚴寂無聲的世界。/從星光里, 樹葉的聲音里/我聽見了你的言詞。/你在哪里, 宇宙在哪里, 人又在哪里? /上帝是愛的上帝, /宇宙是愛的宇宙。//人呢? ——/上帝啊! 我稱謝你, /因你訓誨我, 阿們。」, 《冰心全集1》, 182-199쪽.

51)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頌祝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2. 소명과 성찰에 대한 인식

冰心の 소명과 성찰에 대한 인식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시인 자신의 삶 주변에 대한 사고 체계와 함께 생활인으로서 종교적 실천을 일관되게 추구해나가는 시인의 자아성찰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1921년 《生命》 2권1기에 예수를 따라갔던 사도 베드로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5월 18일 오전, 富柯慕慈 여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했는데, 단상에 올라오더니 종이를 한 장 펼쳐 보였다. 그 위에는 “시몬 +그리스도 = 베드로. 나 +그리스도 =?” 라고 적혀 있었고, 난 이것을 보자 머리에 갑자기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 후 그분의 강연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몬의 용감함을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잠기게 하자 바로 합쳐져 베드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잠긴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참 빛을 받으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하여 위대한 업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기를 원하는가? 이 방정식을 당신의 뇌리에 새겨놓고 언제나 이 방정식의 답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 +그리스도 =?52)

冰心은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을 자신 삶에 투영해 탐색하고 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 시몬은 그물에 가득찬 물고기를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 어부 시몬이 부름에 순종하여 사도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冰心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번민과 고난
당신의 은혜와 영광 속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를 강하게 하고,

52) 冰心, 〈我+基督=?〉: 「五月十八号上午, 富柯慕慈太太到我們學校來演講, 她站在台上, 舉着一張紙, 上面寫着“西門+基督=彼得 ‘自己’+基督=?”我看見了之后, 腦中忽然起了無數的感想. 她的演講, 我几乎听不見了. 以西門的勇敢, 滲在基督的愛里, 便化合成了彼得, 成了基督教的柱石. 我要是滲在基督的愛里, 又可得怎樣的效果呢?.....誰愿藉着光明的反映, 發揚他特具的天才, 貢獻人類以偉大的效果? 請銘刻這個方程在你的腦中, 時時要推求這方程的答案, 就是. 我+基督=?”, 《冰心全集 1》, 196-199쪽.

저를 지켜 주시고,
영원히 당신의 자리 앞에서
정결한 딸 되고
찬란한 사자(使者)가 되어.
 위대한 영혼을 찬양합니다!

사방에 사람 소리 없고,
고요한 하늘,
자애로운 달,
 경건하게 침묵하는 얼굴을 비칩니다. -〈저녁기도(1)〉⁵³⁾

〈저녁기도(1)〉에는 冰心の 신앙실천 의지가 좀 더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번민과 고난’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자신은 모든 것을 비웠음을 말하고 있다. ‘정결한 딸’과 ‘찬란한 사자(使者)’가 되어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겠다는 결단은 더는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표현이다. 〈생명〉·〈깊은 고요〉에서는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깨달은 기독교적 인생관과 신앙 자세가 좀 더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⁵⁴⁾

하나님!
당신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이토록 공허하게 하시는지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여전하지만
내일은 누가 알 수 있으리오!
하나님!
만물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당신께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멘-〈생명〉⁵⁵⁾

53) 冰心, 〈晚禱(1)〉: 「煩惱和困難/在你的恩光中, /一齊拋棄; /只剛強自己/保守自己, /永遠在你座前/作聖潔的女兒, /光明的使者, /贊美大靈! // 四無人聲, /嚴靜的天空下, /只慈憐的月/照着虔誠靜寂的面龐。」, 《冰心全集1》, 461-462쪽.

54) 許正林, 《中國現代文學與基督教》(上海: 上海大學出版社), 69-72쪽.

〈생명〉은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여기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어제’ ‘오늘’ ‘내일’ 시간의 흐름과 ‘만물의 결말’ 인간 삶의 有限性에 대한 회의를 통해 터득하게 된 정결한 신앙심을 표현하였다. 신앙인으로서 절대자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이다.

(三)

지나치게 생각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지나치게 말 많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사랑 속에서

인자하심과 은혜의 빛을 알 뿐,

무엇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느끼지만, 입으로는 침묵할 뿐,

무한한 자연에 표현된 끝없는 자애를 들어보라

마음은 따스하고:

그의 무한한 자연을 듣는다,

무궁한 자애로움을 표현한. -〈깊은 고요〉3연56)

〈깊은 고요〉는 성경 욥기42:3을⁵⁷⁾ 바탕으로, 인간의 사고와 언어 표현의 한계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창조자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관념적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의 빛’을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생명〉·〈깊은 고요〉 두 편 모두 실존적 삶 속에서 기독교도로서의 갈등,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성찰을 통해 터득한 신앙생활과 믿음의 실천 의지를 진솔하게 그렸다. 다른 한편으로 〈인격〉·〈사명〉은 시인 자신의 고뇌와 삶에 대한 성찰로서, 종교적 분위기와 함께 哲理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55) 冰心, 〈生命〉(《雅各書》第四章第十四節、《詩篇》第八十九篇第四十七節): 「上帝啊! /你創造世人, /爲何使他這般虛幻? /昨天一過去了。/今天一依然? /明天一誰能知道! /上帝啊! /万物的結局近了, /求你使我心里清明, /呼吁你禱告你, /直到万物結局的日子, 阿們。」, 《冰心全集1》, 190-199쪽.

56) 冰心, 〈沉寂〉(《約伯記》第四十二章第三節): 「(三)盡思量不若不思量, /盡言語不如不言語; /愛慕下, /只知道慈氣恩光, /此外又豈能明悟。/我只口里緘默, /心中蘊結; /听他无限的自然, /表現系无窮的慈愛。」, 《冰心全集1》, 190-199쪽.

57)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슨 주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무슨 학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조화로운 신비에 동참해야만 한다.
 그분의 순결하고 높은 인격을 갖기만 한다면.
 전능의 하나님!
 청정한 자연을 통해 조용히 간절히 구하기는,
 고상하고 독립적인 인격을 형성되기를. -(인격)⁵⁸⁾

이 시는 종교적 구원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신앙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구원의 섭리는 主義나 學說이 아닌 ‘그분의’ 人格을 닮아가는 실천적 신앙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능의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인격이 형성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종교적 구원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순결하고 높은 인격’을 형상화하였다.

어느 봄날 이른 아침
 흘러가는 물결 같은 차 속 :
 가는 비 뿌려진 낮은 성벽,
 비에 젖은 버드나무,
 내가 지나야 할 사명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느 여름의 황혼녘-
 물 끊어진 정원:
 저녁노을 대나무 발 비추고,
 해나무를 비추고 있다.
 내가 지나야 할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사명)⁵⁹⁾

위 시는 시 제목과 주제 모두 ‘사명’으로 삼을 만큼 절실한 사명감을 전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명을 알게 되었다’→ ‘사명을 받아 들었다.’

58) 冰心, 〈人格〉: 「主義救不了世界, /學說救不了世界, /要參與那造化的妙功呵, /只有你那純潔高尚的人格。/万能的上帝! /求你默默的藉着无瑕疵的自然, /造成我們高尚獨立的人格。」, 《冰心全集1》, 239쪽.

59) 冰心, 〈使命〉: 「一个春日的早晨——/流水般的車上: /細雨洒着古牆, /洒着楊柳, /我微微的覺悟了我携帶的使命。//一个夏日的黄昏——/止水般的院里: /晚霞照着竹篷, /照着槐樹, /我深深的承認了我携帶的使命。」, 《冰心全集1》, 527쪽.

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시적 자아의 소명의식과 소명에 순응하는 자세를 느낄 수 있다. 성경적 소재 없이도 성숙한 신앙의식과 신앙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은 갈림길이 없습니다.
또한, 갈림길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안과 의구심을 한데 녹여서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당신의 보좌 앞에 받치웁니다. -(갈림길)⁶⁰⁾

〈갈림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갈등·방황하는 ‘갈림길’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현실의 시련과 고통을 의연하게 감내하고 살아가겠다는 견고한 삶의 자세이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또한 〈봄물98〉은 경건한 기도를 통해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거문고를 탈 줄 모릅니다,
다만 고요하게 들을 뿐;
저는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다만 조용히 바라볼 뿐;
저는 온전한 사랑을 전할 줄 모르지만,
다만 경건하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봄물98)⁶¹⁾

전체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懇求하는 시적 분위기가 흡사 성경 〈잠언〉을 읽는 듯하다. 경건한 기도를 통해 종교적 삶과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적 자아의 내면을 형상화하였다. 詩이라기보다는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진솔한 산문 같은 느낌이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의 은총을 발견하는 冰心의 기독교적 성찰은 현실

60) 冰心, 〈岐路〉: 「今天沒有岐路,/也不容有岐路了-/上帝!/不安和疑難都融作/感恩的淚眼,/獻在你的座前了!」, 《冰心全集1》, 529쪽.

61) 冰心, 〈春水九八〉: 「我不會彈琴,/我只靜默的听着;/我不會繪畫,/我只沉寂的看
着;/我不會表現万全的愛,/我只虔誠的禱告着。」, 《冰心全集1》, 430-446쪽.

에서 상처받은 삶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고통과 체험들을 섭리의 실현을 위한 시련으로 여기고 극복·인고하려는 신앙 정신의 표현이라 하겠다. 동시에 실천적 신앙을 견지하려는 시인의 성숙한 신앙적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3.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인식

기독교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는 속죄물이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기본 교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희생과 사랑이며 구원을 상징한다.⁶²⁾ 하나님 이 인간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구원을 현실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내가 말하는 구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지옥에서 구출을 받았다거나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구원은 현실적으로 순결성을 찾는 것이며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신의 형태로 의와 거룩함과 정의와 진리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⁶³⁾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구원이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神이 인간을 도우신다면 다시 에덴동산과 같은 천상의 세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본래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불순종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인간은 신으로부터 소외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므로, 죄를 지은 인간이라도 일단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십자가 고통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冰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2) 로마 5:0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3) 손흥국, 《웨슬레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897쪽.

우리의 성경 수업시간에 이미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었다. 나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이해하였다. 또한 가난한 목수의 사생아에 뜻밖에 그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보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형상은 존경할 만하다.⁶⁴⁾

冰心은 사랑의 본질을 예수가 실천한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愛人如己)”로 파악하고 공감과 존경을 표시하였다. 특히 그녀는 성경에서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희생당함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十字架 사건에 상당히 감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랑은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일지라도 굴절되지 않고 대상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利他的 사랑이다.⁶⁵⁾ 〈갯세마네동산〉·〈골고다〉·〈하늘가기〉에서 冰心은 성경 속 사건을 서술하듯 예수의 출생, 십자가 사건과 부활, 관련된 인물들 등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신앙의지를 함께 담았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함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十字架 사건과 예수의 傳記의 사실을 소재로 형상화하였다.

 감감한 하늘,
 차가운 바위, 누가 그와 함께 잠에서 깨어있는가?
 졸린 자는 잠자고 있고,
 반역자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나 그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피땀 흘리며,
 “아버지,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 아멘. -(갯세마네동산)⁶⁶⁾

64) 冰心, 〈我入了貝滿中齊〉: 「我們的聖經課已從《舊約》讀到了《新約》, 我從《福音》書里了解了耶穌基督這個‘人’。我看到一個窮苦木匠家庭的私生子, 竟然能有那麼多信從他的人, 而且因為宣傳‘愛人如己’, 而被殘酷地釘在十字架上, 這個形象是可敬的。’, 《冰心全集7》, 513-522쪽.

65) 하용조, 《행복의 시작》(두란노, 2011), 90쪽.

66) 心, 〈客西馬尼花園(《路加福音》第二十二章第四十四節)〉: 「漆黑的天空, /冰冷的山石, /有誰和他一同徹醒呢? /睡着的只管睡着, /圖謀的只管圖謀。/然而—他傷痛着, 血汗流着, /‘父啊, 只照着你的意思行。’/上帝啊! 因你愛我們—/‘父啊, 只照着你的意

〈갯세마네 동산〉은 요한19:30을 소재로,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예견한 예수가 제자들과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장면을 그렸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한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간절히 기도한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이 두렵지만 '아버지,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죄악은 거대한 산처럼 그를 누르고,
비웃음은 무수한 화살 되어 그를 향한다.

십자가

등에 지고서
못 박혔다.

하나님!

그의 호소를 들어보소서. - 그의 호소를 들어보소서!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골고다)⁶⁷)

〈골고다〉는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사건을 형상화하였다.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던 예수의 모습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희생물이 되는 모습을 성경 내용 그대로 묘사하였다.

神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신 속죄물로 바쳐져야 했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다.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조롱과 치욕, 비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반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간다.

思行。”阿們。/注：路加福音 22:44 耶穌極其傷痛，禱告更加懇切。汗珠大如血點，滴在地上。），《冰心全集1》，182-199쪽.

67) 冰心, 〈骷髏地(《約翰福音》第十九章第三十節)〉: 「罪惡, 山岳般堆壓着他, /笑罵, 簇矢般聚向着他。/十字架, /背起來了, /釘上去了。/上帝啊! /听他呼喚—听他呼喚! /“父啊, 成了!”上帝啊! 因你愛我們—“父啊, 成了!”阿們。/注：約翰福音19:30 耶穌嘗了那醋, 就說, 成了。便低下頭, 將靈魂交付神了), 《冰心全集1》182-199쪽.

인간 세상의 불의와 부패와 불순종을 이해하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는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죽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얻어 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음은 ‘죄악’, ‘비웃음’, 치욕, 분노, 비애, 배신 등의 정신적 고뇌와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누구인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희생물로 삼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

생명은 다하였다,
 다만 남은 건 검은 그림자 뿐.
 부러진 나뭇가지,
 몇 마디 신음뿐.
 빛을 내지 않는다고 불어 꺼버리고 말았다,
 꽃 피우지 않는다고 부러뜨리고 말았다.
 하나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꺾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분의 사랑,
 영원무궁 할지이다. 아멘. -(그는 누구인가?)⁶⁸⁾

기독교적 구원의 핵심인 사랑은 최악의 환경과 조건에도 굴절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희생할 힘이 내재한 위대하고 절대적인 것이다.⁶⁹⁾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꺾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이란 바로 환경이나 조건에 쉽게 변질하는 사람과 사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의 희망은 그분의 사랑, 영원무궁할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랑을 소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그분은 세리, 서기관들을 증오했고 모든 가식적인 위선자를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몸소 당하신 능욕

68) 冰心, 〈他是誰(《以賽亞書》第四十二章第三節)〉: 「膏將盡了/只剩得一圈的黑影。/枝受傷了, /只剩得几聲的呻吟, /不發光的, 吹滅了罷, /不開花的, 折斷了罷。/上帝啊! /“受傷的葦子, 他不折斷。/將殘的灯火, 他不吹滅。”/我們的光明—他的愛, /永世無盡, 阿們。/注: 以賽亞書42:3 壓傷的蘆葦, 他不折斷。將殘的灯火, 他不吹滅。他凭真實將公理傳開。), 《冰心全集1》, 182-199쪽.

69) 엄도성, 《성경찬송 낱말사전》, (성광문화사, 1989), 38쪽.

과 학대와 독설에 대해서는 최고의 관용과 위대한 언어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인격입니까! 이런 인격을 우리러보며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⁷⁰⁾

冰心은 많은 작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찬미하였다. 낮고 겸손하게 몸소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내어준 희생정신만 있다면 사회적 모순이나 갈등, 이념 간의 충돌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冰心 시에서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인식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아가 기독교의 정신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신은 인간이 되었고 인간의 몸을 입은 신은 가장 천한 위치에서 인간의 본성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처절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冰心이 시에서 완성하고자 했던 것은 구원에 이르는 사랑과 희생정신임을 알 수 있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五四 시기에 창작·발표된 冰心の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녀는 기독교와 친숙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미션계학교에서 진학하여 기독교를 접하였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그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성경 학습과 종교 체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성립하였고, 성경 내용과 기독교 정신을 담은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특히 1921년 冰心이 기독교 간행물인 《生命》에 집중적으로 발표한 성시는 聖

70) 冰心, 〈從去年到今年的聖誕節〉: 「耶穌基督便是一切偉大愛心的結晶, 他憎惡稅吏, 憎惡文士, 把一切假冒偽善的人. 他憎惡一切以人民爲對象的暴力, 但對於自己所身受的凌虐毒害, 却以最寬容偉大的話語、禱告着說' 願天父赦免他們、因爲他們所做的、他們自己不知道. 多麼偉大的一個愛的人格! 瞻仰了這種人格, 怎能不把榮耀歸於上帝!」, 《冰心全集3》, 426-427쪽.

經을 읽을 때마다 느꼈던 특별한 감동을 표현한 작품들로, 아멘으로 끝을 맺는 祈禱詩형식을 사용하여 신앙심과 기도의 심정을 표현하였다.⁷¹⁾ 이처럼 五四 시기 冰心の 詩 작품들 속에는 성경 내용과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자세, 기독교적 인생관 등 기독교 문학의 특성이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冰心の 詩에서 自然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자연을 갈등이 해소되고 분열이 사라진 평화의 공간으로 여기는 자연 예찬과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낙원을 향한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冰心은 神이 창조한 자연을 예찬하고 신의 섭리가 행해지는 장소와 대상으로 찬양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며 동시에 그 자연을 통해 神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神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인은 현실의 아픔이나 고통·번뇌에서 벗어나 태초의 낙원에서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소명과 성찰에 대한 인식은 생활과 신앙의 일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내면적 반성과 깨달음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시인이 현실 세계에서도 올바른 기독교도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생활인으로서 종교적 실천을 일관성 있게 추구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과 자세는 冰心이 지향하는 실천적 믿음과 행동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현실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삶의 대응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희생과 구원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예수의 희생과 사랑을 향한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결체로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상이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十字架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하신 하느님의 攝理이며 신과 괴리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冰心이 시 속에서 예수의 희생과 사랑을 추구하고 구원을 지향하는 것은 분쟁과 죄악이 사라지고 신의 뜻이 실현되길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冰心은 1920년대에 독실한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쓴 詩 작품들 속에는 기독교 교리나 신앙적 체험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상징들과 성경 속 이야기들이 기독교적 의식을 수반한 채 문학적으로 승

71) 王本朝, 《20世紀中國文學與基督教文化》(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0), 309-311쪽.

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冰心이 자신의 문학과 삶 속에서 지향했던 것은 기독교 정신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五四 시기 冰心の 기독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詩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시인 冰心 삶과 의식의 반영인 동시에 중국 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하겠다.

【参考文献】

- 冰心 卓如 編《冰心全集》1,2,3,7卷, 海峽文藝出版社, 1994.
肖鳳《冰心傳》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
盧啓元《冰心作品欣賞》廣西教育出版社, 1990.
許正林《中國現代文學與基督教》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03.
王本朝《20世紀中國文學與基督教文化》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0.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성경》서울, 2008.
성서교재간행사《마스터성경》서울, 1989.
이승구《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서울, sfc, 2008.
김상태·김경철《기독교의 기초》서울, 보이스사, 1999.
이장식《기독교사상사》대한기독교서회, 1966.
손흥국《웨슬레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김병년《바람 불어도 좋아》IVP 2013.06.
엄도성《성경찬송 날말사전》성광문화사, 1989.
김두흠《인간이 사는 목적3》이담북스, 2010.
하용조《용서의 축복》두란노, 1996.8.
하용조《행복의 시작》두란노, 2011.7.
楊劍龍〈基督教与冰心“五四”時期的創作〉;《江海學刊》1995年第6期.
王富仁〈中國現代新詩的“芽儿”冰心詩論〉;《北京師範大學學報》1996年第5期.
黃曉娟〈從精神到身體〉;《江海學刊》2005年第3期.
楊劍龍〈教會學校文化教育與中國現代作家〉;《江海學刊》2007年第4期.
楊劍龍〈論基督教文化與中國現代文學的人道精神〉;《世界宗教研究》2008年第2期.
楊劍龍〈論基督教文化与冰心、許地山小說的敘事模式〉;《中國比較文學》2009年 第3期(總第76期).
康泳〈論冰心創作中的母愛意識與基督教文化的影響〉;《昆明理工大學學報》第9卷 第12期, 2009.12.

- 羅義華 〈論宗教與冰心‘小詩’文體的發生〉: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 第33卷 第1期, 2013.1.
- 박남용 〈중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제33집, 2010 겨울호.
- 심혜영 〈중국현대문학의 창을 통해 본 근대중국과 기독교의 만남〉: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8輯, 2011.
- 盧在軾 〈근대중국여성문제에대한인식연구〉: 《震檀學報》 113호, 2011.
- 엄귀덕 〈중국 초기 현대시의 신여성형상〉: 《人文學研究》 84호, 2011.
- 李庚子 〈중국 미션계 학교의 발전 과정〉: 《中國學論叢》 第45輯, 2014·08.
- 박은숙 《冰心の 小詩연구》 계명대대학원 중어중문 석사논문, 1994.
- 李秀娟 《聖經中譯研究》 忠南大大學院 중어중문 박사논문, 2013.

【英文提要】

Bing Xin was the one of the pioneers of the modern Chinese literature and wrote many Christian poems in her works. The poet herself confessed that the Bible had a big influence on her wor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ristian spirit of her poems and the basis of her consciousness influenced by the Christianity.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ity, Bing Xin who was a poet and a Christian, wrote her poems and tried to overcome the sufferings and difficulties of reality. In the study I considered the Christian idea found in Bing Xin's poetry by analyzing her works in the May Fourth Era. The Christian idea found in her poetry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First, it is an earthly paradise. she praised the ability of God's Creation and divine providence which appeared in the nature. Second, a life experience and religious experience. The experience was appearing as that of solving process religiously while looking at the life experience again. Third, a consciousness of salvation and sacrifice. She expressed the hope for salvation and the confession

of belief by writing her poems about the life of Jesus Christ who suffered on the cross to redeem human beings from sin.

【主題語】

중국현대시, 冰心, 기독교 시, 기독교 인식, 기독교 의식, 성경, 성시
中國現代詩, 冰心, 基督教 詩, 基督教認識, 基督教意識, 聖經, 聖詩
modern Chinese poetry, Bing Xin, Christian Conscious, Christian Spirit,
Christian poetry, The bible.

투고일: 2016. 7. 15 / 심사일: 2016. 7. 20~8. 5 / 게재확정일: 2016. 8. 15
